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 2 : 다시 배움과 희<mark>망에 대하여</mark>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2014. 9. 26~9. 28 @haja center

서울특별시 주최 주관 하자센터 후원 연세대학교, 영등포구, 서울시청년일<mark>자리허브, JP모간,한국암웨이</mark> 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mark>교육연대, 도서출판 민들레,</mark> 협력 방물단,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야기꾼의 책공연 문의 070-4268-9910(홍보) 070-4268-9917(프로그램 협업)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http://jagongong.net/summit2014/ 정보 하자센터 www.haja.net 프로그램 신청 아카이브하자 http://archive.haja.net/summit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의 장에 초<mark>대합</mark>니다.



초대의 말

을 봄, "세상(世)을 초월(越)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월호가 진도 앞바<mark>다에</mark>서 침몰하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고가 9.11 테러, 기후변화, 2008년 뉴욕발 금융위기, 2011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 '위험의 세계화'의 진행과 무관하지 않음을 직감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그리고 지구상의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겠지요. 지금 우리 인류는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사회(risk society)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터질 위기와 재난 속에서도 용기 있는 삶을 살아내는 지혜와 생명력을 가진 청소년들을 우리는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까요? 창의성을 화두로 다음 세대의 삶과 교육을 이야기해온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조직화된 무책임의 체제에 던져진, 위험을 감수하고 불안한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들과 무엇을 도모하고 무엇을 배워가야 할까요? 이런 고민 속에서 올해에도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독일의 석학 울리히 벡(Ulrich Beck) 교수는 위험(risk)이란 단순한 위기(crisis)가 아닌, 근대화가 유발하고 도입한 위기와 재해와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며 위험사회란 순간적으로 엄청난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그간 하지 않던 창의적 질문을 하게 된다면 '해방적 파국'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간 인류는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넘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실을 직면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에도 당황하지 않고 다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탄력적 회복력으로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타인과 손을 잡는 것이 점점 두려운 일이 되고 있고, 홀로 있으라는 시장의 유혹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지금우리는 다시 공통의 감각을 키우며 대대적인 '탈바꿈'을 하려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창의서맛은 새로운 윤리와 인식의 지평을 열어가는 학습을 해보려 합니다. 기조 강연은 경제 기적 이후 동북아시아의 삶을 연구해온 호주국립대학교 테사 모리스-스즈키(Tessa Morris-Suzuki) 교수,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동일본 재해 지역부흥대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노동경제학자인 도쿄대 겐다 유지 (Yuji Genda) 교수와 덴마크 그룬트비의 영향을 받은 국제시민대학 IPC(International people's college) 의 쇠렌 라운비에르(Søren Launbjerg) 교장이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모리스-스즈키 교수는 국가와 시장이 나/우리의 필요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면 스스로 삶의 필요를 발견하고, 힘을 모아 어려움을 해결해가고 살아내는 생존의 정치학(survival politics)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된 직업이나 일을 찾기도 어렵고 가족 외에는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고립무업(약칭 SNEP: Solitary Non-employment Person)' 시대를 연구해온 겐다 교수는 '느슨한 연대'(weak ties) 관계망을 통해 희망을 직조하는 방식에 대해 들려주시기로 하였습니다. 덴마크 국제시민대학 IPC의 라운비에르 교장은 기존 교육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그룬트비 전통을 이어가는 교육자로서 "배움에 적대적인 시대에 배움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지혜를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창의서밋에서는 대안교육과 제도교육 모두 '포스트 후쿠시마' '포스트 세월호' 시대에 희망을 만들어갈 배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도교육 현장에서는 특히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자기 앞가림을 하고,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터져도 탄력적 회복력을 갖고 대처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실질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소통을 위한 영어 글로비시 (Globish) 워크숍, 태양패널을 제작하는 적정기술 워크숍, 희망을 담아내는 타일 모자이크 벽화 워크숍, 소박한 먹거리와 흥겨운 놀이가 있는 마을장터와 달마당, 그리고 나눔부엌 등 설레는 만남과 쉼이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회피하고 싶은 현실을 용기 있게 대면하면서 고른 숨을 쉴 줄 아는 여러분을 전환과 연대를 도모하는 축제의 장으로 초대합니다.

조한혜정(하자센터장,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프로그램 전체 구성

어울림 축제	재난사회의 교육	쉼표가 있는 교육
개막식 폐막식	원탁대담 - 재난 사회에서의 배움을 묻다	원탁포럼 - 덴마크 사례에서 배우는 대안 교육 법제화의 방향
서밋 나눔부엌 서밋 달시장 서밋 하자투어		이 시대 교육포럼 1 - 전환학년제(gap year), 쉼이 있는 배움에 대한 상상 이 시대 교육포럼 4 - 학교 안팎을 잇는 배움과 마을 교육공동체
사람책을 만나다	- 격차사회에 눌리지 않는 희망,	비진학포럼 - 비진학 시대를 살아가는 후기 청소년
타일벽화 워크숍 - 희망을 담은 타일 모자이크 벽화 제작 적정기술 워크숍 - 태양광 패널 만들기 글로비시 워크숍 - 교사를 위한 글로비시 연수 서밋 달마당		사례공유포럼@놀이 - 동네에서 '놀기', 새로운 상상 과 확장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프로그램 일정 및 장소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세부 프로그램 안내

1. 어울림 축제(축제)

개막식 ※ 동시통역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4:00-15:30

장소 신관 4층 하하허허홀

초대 위험사회에서 배움과 삶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들(300명)

> 제 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 행사. 활기찬 오픈 퍼포먼스에 이어 서밋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환영인사, 올해 서밋의 주제를 대변하는 세 명 키노트 스피커 강연이 이어진다

- 1. 여는 퍼포먼스(이야기꾼의 책공연, 쿨레칸)
- 2. 축사 및 인사말 (서울특별시, 연세대학교, 하자센터)

내용

- 3. 개막강연1. 테사 모리스-스즈키(Tessa Morris-Suzuki, 호주국립대 교수) - 위기에서 창의로 : 재난의 시대에 '정치적인 것'을 다시 만들기
- 4. 개막강연2. 겐다 유지(玄田有史, 일본 도쿄대 교수) - 앞으로의 사회에서 리스크, 희망 그리고 유대
- 5. 개막강연3. 쇠렌 라운비에르(Søren Launbierg, 덴마크 IPC 교장)
 - 삶을 위한 배움과 스스로 시작하는 전환
- 6. 서밋 프로그램 안내
- 7. 닫는 퍼포먼스(페스테자와 쿨레칸 합동공연)

폐막식

초대

일시 2014년 9월 28일(일) 13:30-14:30

장소 본관 1층 쇼케이스

제 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3일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마무리하고 싶은 참가자들(100명)

창의서밋 스태프과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3일간의 일정을 회고하고 내년 서밋을 기 약하며 유대관계를 다지는 네트워크 행사이다

내용

- 1. 폐막 영상(창의서밋 스케치영상)
- 2. 서밋회고(국내외 서밋 참여자들)
- 3. 폐막사 및 감사 인사
- 4. 폐막 공연 및 네트워크 파티



서밋 나눔부엌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2:00-13:30

장소 신관 1층 허브 카페 & 중정

초대 국내 · 외 초청자 및 개막식 참가자(200명)

2013년 6월부터 시작해 매주 수요일 점심마다 열리는 '나눔부엌'은 나눔과 돌봄, 환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장이다. '창의적 공공지대'인 하자허브의 대표적 프로젝트로 자리 내용 나눔부엌이 서밋 개막을 기념해 특별히 오픈한다. 주요 국내·외 초청자, 개막식 참가지 두 밥상에 둘러 앉아 음식과 인사를 함께 나누는 자리이다

서밋 달시장

2014년 9월 26일(금) 17:00-21:00

장소 하자센터 앞마당 일대

초대 서밋 참가자 누구나

> 2010년부터 4년째 하자센터가 주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반의 대안적 마을장터 '달시 장'. 서밋 개막과 맞춰 9월의 장을 개최한다. 올해 '함께 일하고 놀고 나누는 마을'이라는 슬 로건으로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마을살이를 구현하고 있는 달시장 곳곳에서 서밋의 정 신을 확인할 수 있다

서밋 하자투어

내용

2014년 9월 26일(금) 12:30-14:00 일시

장소 하자센터 곳곳의 생태, 도시농업, 적정기술, 에너지 자립 실험공간

초대 생태, 적정기술, 에너지 자립 등 지속가능성 이슈 및 이의 현실 적용에 관심 있는 이들(15명)

하자센터 곳곳에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각종 실험 공간이 있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에너 지 자립하우스 '살림집' 본관 옥상에 자리잡은 '하자마을 옥상농원', 마당의 빗물 저장고 등 을 안내와 함께 돌아보는 투어 프로그램이다

사람책을 만나다

일시	2014년 9월 27일(토) 13:00-15:00
장소	본관 2층 999클럽
초대	다른 이들의 삶과 일에 관심있는 청소년들(40명)
내용	이제는 많이 알려진 '리빙 라이브러리(Living Library)' 프로그램으로 초대된 연사를 '사람 책'으로, 그와 대화하고픈 이들을 '독자'로 상정해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듯 일정한 공간에 서 정해진 시간 동안 대화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민, 핵 누출사고 이후 후쿠시마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 하자마을의 어른이자 촌장인 물리 학자 등 인상적인 '사람책'득과 만나게 된다

적정기술 워크숍 - 태양광 패널 만들기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0:00-13:00

장소 본관 앞 '살림집' 앞마당

<mark>초대</mark> 적정기술에 관심 있는 이들(10명)



내용

연세대학교와 JP모간이 함께하는 청(소)년 현장 연계 교육사업 '자생(自生), 삶의 기반' 중하자센터가 주관하는 '살림집' 프로젝트 팀이 진행하는 워크숍. '살림집'은 올해 하자센터 앞마당에 단열, 난방, 취사 등 전 설비에 적정기술을 적용해 만들고 있는 에너지 자립하우스의이름이기도 하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이와키시에서 공동체 회복과 자립 활동을 돕고 있는 Denkacom이 자체 개발한 라미네이터를 사용해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본다

글로비시(Globish) 워크숍 - 교사를 위한 글로비시 연수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0:00-13:00	
장소	신관 303호	

<mark>초대</mark> 글로비시에 관심 있는 교사(20명)

내용

1천 5백 개의 기본 단어, 24개의 간단한 문장구조와 기본적인 발음구조만 익히면 되는 쉬운영어 글로비시. 하자작업장학교에서는 원작자 장 폴 네리에르의 지원 아래 글로비시의 청소년 교육 버전을 만들기도 했다. '본토' 영어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린 교사들을 위해 기획된 글로비시 기반의 창의적 의사소통 워크숍이다

타일벽화 워크숍: 희망을 담은 타일 모자이크 벽화 제작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5:30-17:00
장소	신관 4층 야외 허브정원
초대	서밋 참가자 누구나
내용	휴대폰 액정이나 컴퓨터 자판만 두드리던 손이 창작의 기쁨을 누리는 프로젝트. 주요 행사 가 열리는 하자센터 신관 4층 하하허허홀 앞 야외 공간 벽면에 타일 조각으로 모자이크 벽 화를 만들어본다.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밋 달마당

일시 2014년 9월 27일(토) 14:00-17:00

장소 하자센터 앞마당 일대

<mark>초대</mark> 서밋 참가자 누구나

내용

대안 마을장터 '달시장'의 메인섹션은 함께 나누고, 아끼고, 바꿔쓰며 살아가는 마을살이를 제대로 보여주는 '달마당'이다. 물건은 물론 재능이나 기술까지 다른 주민들과 바꿀 수 있는 물물교환, 면생리대, 양초, 비누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생필품 워크숍, 미싱이나 손바느질로 수선, 리폼해 보는 재활용공방 등 삶의 지혜가 모여있는 마을살림의 장이 펼쳐진다.







2. 재난사회의 교육(재난)

원탁대담 - 재난사회에서의 배움을 묻다 ※순차통역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6:00-18:00	
장소	본관 1층 마을서당	
초대	세월호 이후 교육의 전환에 관심 있는 이들(50명)	
	불안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재난시대에 우리 교육이 나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지혜를 나누는 공개 대담. 이번 서밋의 주요 키노트 스피커들이 참여한다	
내용	- 사회 : 김찬호(하자센터 부센터장, 성공회대 초빙교수)	
	- 패널 : 테사 모리스-스즈키(호주 국립대), 겐다 유지(일본 도쿄대 교수), 정병호(한양대 교 수,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공동대표) 조한혜정(하자센터장, 연세대 명예교수)	

이시대	교육포럼 2 - 포스트후쿠시마시대의	학습고	과 성장 / 청소년과 함께
일시	2014년 9월 27일(토) 15:00-18:00		
장소	신관 4층 하하허허홀		
초대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 및 학부모 등	(100명)	
내용	국내 대안학교 청소년, 일본 후쿠시마 이 소 <mark>년들이 각자의 배움과</mark> 성장의 경험을 <mark>다</mark>		청소년, 홍콩창의성학교 청소년 등 3개국 청 사리이다

이 시대	교육포럼 3 - 생태적 전환을 설	실천하는	교실의 교사들 / 교사와 함께
일시	2014년 9월 28일(일) 10:00-13:00)	
장소	신관 4층 하하허허홀		
초대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 및 학	부모 등(10	00명)
내용	일본 후쿠시마 그리고 한국의 밀 교사의 경험을 학부모들과 함께 I		등 재난의 현장에서 배움과 실천을 이끌어내는 혜를 모아본다

	면 - 공동체 다시 만들기 ; 마을' 운동에서 후쿠시마까지 / 테사 모리스-스즈키와 함께 ※순차통역
일시	2014년 9월 27일(토) 10:00-12:00
장소	신관 203호(허브 원탁방)
초대	풀뿌리 자치 및 지역운동, 지역사회 학습에 관심 있는 이들(50명)
내용	자신과 이웃의 삶이 총체적 위기에 처했을 때, 심지어 국가가 이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까? 테사 모리스-스즈키 교수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적 역할을 뛰어넘는 사회적 행동과 발언을 통해 조용히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생존의 정치학(survival politics)을 이야기한다. 모치즈키, 후쿠시마 등 일본의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파국의 시대, 국가와 시장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면서 삶의 필요를 발견하고, 힘을 모아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서밋 강연 - 격차사회에 눌리지 않는 희망, 어떻게 만들까 / 겐다 유지와 함께 ※순차통역		
일시	2014년 9월 27일(토) 16:00-18:00	
장소	신관 203호(허브 원탁방)	
초대	후기 청소년과 청년의 삶과 교육에 관심 있는 이들(50명)	
내용	불안과 불확실함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이 앞으로 부딪히게 될 벽은 간단히 넘어설 수 없을 만큼 거대할 지도 모른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희망과 사회 전체의 희망을 발견하리라 말하는 겐다 유지 교수의 집중 강연이다	

3. 쉼표가 있는 교육(쉼표)

원탁포럼 - 덴마크 사례에서 배우는 대안교육 법제화의 방향 ※순차통역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0:00-12:30

장소 신관 203호(허브 원탁방)

조대 대안교육연대 회원 학교 및 단체 등 대안교육 법제화에 관심 있는 이들(50명)

나라마다 역사와 문화가 달라도 교육기본권은 인정되어야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제도적으로 국가독점의 교육체제를 넘어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요구하고 있는 대안교육연대와 함께 공교육 안팎을 아우르는 배움의 권리를 덴마크 자유교육을 통해 배우는 자리를 마련한다

- 발제: 쇠렌 라운비에르(덴마크 IPC 교장), 클라우스 슈탈(덴마크 IPC 부교장)

이 시대 교육포럼 1- 전환학년제(gap year), 쉼이 있는 배움에 대한 상상 ※순차통역

일시 2014년 9월 27일(토) 13:00-16:00

장소 본관 1층 마을서당

내용

내용

초대 자유학기제, 대안교실 등 교육의 전환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교사 등(50명)

경쟁과 불안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10대 중후반의 전환기에 학교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잠시 쉬면서 그간 자기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돕는 갭이어(gap year) 성격의 배움터(전환학교 또는 틈새학교)에 대한 상상을 해보는 자리. 덴마크 IPC의 사례를 통해 시민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진 한국사회에서의 가능성을 찾아본다

- 발제 : 현병호(대안교육연대 대표), 쇠렌 라운비에로(덴<mark>마크 I</mark>PC 교장)

이 시대 교육포럼 4 - 학교 안팎을 잇는 배움과 마을교육공동체 ※순차통역

일시 2014년 9월 28일(일) 10:00-13:00

장소 신관 203호(허브 원탁방)

자 마을이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배움에 관심 있는 (대안, 혁신)학교 교사, 마을/교육 활동가, 교육행정가 및 연구자 등(50명)

혁신교육지구사업, 마을학교 등 '마을이 학교다'는 모토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고 있다. 교육정책 영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학교를 넘어선 학교,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로 불리는 미국의 공립형 대안학교 메트스쿨(Met School)이 그간 실천해온 다양한 '학교 밖 학습(leaving to learn)' 사례를 들어본다

- 발제 : 앤드류 프리슈먼(Big Picture Learning 프로그램 개발 담당 이사)

비진학포럼 - 비진학 시대를 살아가는 후기 청소년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0:00-12:00

장소 본관 1층 쇼케이스

초대 비진학 등 후기 청소년의 삶과 생애기획에 관심 있는 이들(50명)

일반고 공동화 현상과 함께 대학 진학과 비진학의 경계선상에 있는 잠재적 비진학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생애사적 기획을 할수 있는 자원을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외적이고 일탈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실업 저성장 시대의 산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저성장 고실업 시대를 맞이하여 후기 청소년들의 진로 찾기의 어려움과 삶의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연세대학교와 JP모간이 함께하는 청(소)년 현장 연계 교육사업 '자생(自生), 삶의 기반' 중 한프로젝트인 '연금술사 일학교'의 현장 사례도 소개된다

- 발제 : 엄기호(교육공동체 '벗' 편집위원), 박진숙(주식회사 연금술사 대표)

사례공유포럼@놀이 - 동네에서 '놀기' : 새로운 상상과 확장

일시 2014년 9월 27일(토) 10:00~12:00

장소 본관 1층 마을서당

초대 지역 <mark>및 세대를 기반으로 놀이를 고민하는 교육 및 놀이활동</mark>가 등(50명)

위험사회라 불리는 이 시대, 사람들은 왜 다시 놀이에 주목하는가? 놀이마저 사교육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현실에서 서로를 돌보는 관계의 힘이 살아있는 마을로 확장된 놀이터를 그려본다. 지역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노는' 다양한 팀의 사례를 공유하며 고민을 나누는 라운드테이블이다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을 알차게 즐기는 3일간의 동선

9월 26일(금)

글로비시(Globish) 워크숍 - 교사를 위한 글로비시 연수

-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0:00-13:00
- 장소 : 신관 303호
- 초대: 글로비시에 관심 있는 교사(20명)

적정기술 워크숍 - 태양광 패널 만들기

-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0:00-13:00
- 장소 : 본관 앞 '살림집' 앞마당
- 초대 : 적정기술에 관심 있는 이들(10명)

오전

원탁포럼 - 덴마크 사례에서 배우는 대안교육 법제화의 방향 ※순차통역

-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0:00-12:30
- 장소 : 신관 203호(허브 원탁방)
- 초대:대안교육연대 회원 학교 및 단체 등 대안교육 법제화에 관심 있는 이들(50명)

비진학포럼 - 비진학 시대를 살아가는 후기 청소년

-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0:00-12:00
- 장소 : 본관 1층 쇼케이스
- 초대: 비진학 등 후기 청소년의 삶과 생애기획에 관심 있는 이들(50명)

서밋 하자투어

- 일시 : 2014년 9월 26일(금) 12:30-14:00
- 장소 : 하자센터 곳곳의 생태, 도시농업, 적정기술, 에너<mark>지 자립 실험공간</mark>
- 초대 : 생태, 적정기술, 에너지 자립 등 지속가능성 이슈 <mark>및 이의 현실 적용에 관심 있는</mark> 이들(15명)

개막식 ※동시통역

-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4:00-15:30
- 장소 :신관 4층 하하허허홀
- 초대 : 위험사회에서 배움과 삶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하는 이들(300명)

타일벽화 워크숍 - 희망을 닦은 타일 모자이크 벽화 제작

Q d

- 일시 : 2014년 9월 26일(금) 15:30~17:00
- 장소 : 신관 4층 야외 허브정원
- 초대 : 서밋 참가자 누구나

원탁대담 - 재난사회에서의 배움을 묻다 ※순차통역

-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6:00-18: 00
- 장소 : 본관 1층 마을서당
- 초대: 세월호 이후 교육의 전환에 관심 있는 이들(50명)

서밋 달시장

- 일시 : 2014년 9월 26일(금) 17:00-21:00
- 장소 : 하자센터 앞마당 일대
- 초대 : 서밋 참가자 누구나

9월 27일(토)

서밋 강연 - 공동체 다시 만들기

- '새로운 마을' 운동에서 후쿠시<mark>마까</mark>지 / 테사 모리스-스즈키와 <mark>함</mark>께 ※순차통역
- 일시 : 2014년 9월 27일(토) 10:00-12:00
- 장소 : 신관 203호(허브 원탁방)
- 초대 : 풀뿌리 자치 및 지역운동, 지역사회 학습에 관심 있는 이들(50명)

오전

사례공유포럼@놀이 - 동네에서 '놀<mark>기' : 새로운 상상과</mark> 확장

- 일시 : 2014년 9월 27일(토) 10:00-12:00
- 장소 : 본관 1층 마을서당
- 초대: 지역 및 세대를 기반으로 놀이를 고민하는 교육 및 놀이 활동가 등(50명)

사람책을 만나다

- 일시: 2014년 9월 27일(토) 13:00-15:00
- 장소 : 본관 999클럽
- 초대 : 다른 이들의 삶과 일에 관심있는 이들(40명)

이 시대의 교육포럼 1

- 전환학년제(gap year), 쉼이 있는 배움에 대한 상상 / ※순차통역
- 일시: 2014년 9월 27일(토) 13:00-16:00
- 장소 : 본관 1층 마을서당
- 초대 : 자유학기제, 대안교실 등 교육의 전환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교사 등(50명)

서밋 달마당

• 일시 : 2014년 9월 27일(토) 14:00-17:00

- 장소: 하자센터 앞마당 일대
- 초대 : 서밋 참가자 누구나

이 시대 교육포럼 2 - 포스트후쿠시마시대의 학습과 성장 / 청소년과 함께

- 일시: 2014년 9월 27일(토) 15:00-18:00
- 장소 : 신관 4층 하하허허홀
- 초대: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 및 학부모 등(100명)

서밋 강연 - 격차사회에 눌리지 않는 희망, 어떻게 만들까 / 겐다 유지와 함께 ※순차통역

- 일시: 2014년 9월 27일(토) 16:00-18:00
- 장소 : 신관 203호(허브 원탁방)
- 초대: 후기 청소년과 청년의 삶과 교육에 관심 있는 이들(50명)

9월 28일(일)

이 시대 교육포럼 3 - 생태적 전환을 실천하는 교실의 교사들 / 교사와 함께

• 일시 : 2014년 9월 28일(일) 10:00-13:00

• 장소 : 신관 4층 하하허허홀

•초대: 대안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 및 학부모 등(100명)

오조

이 시대 교육포럼 4 - 학교 안팎을 잇는 배움과 마을교육공동체

• 일시 : 2014년 9월 28일(일) 10:00-13:00

• 장소 : 신관 203호(허브 원탁방)

• 초대 : 마을이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배움에 관심 있는 (대안, 혁신)학교 교사, 마을/교육활동가, 교육행정가 및 연구자 등(5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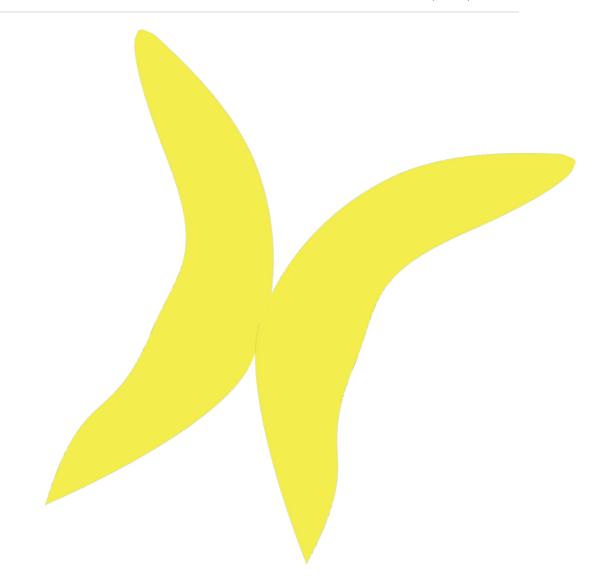
폐막식

오후

• 일시 : 2014년 9월 28일(일) 13:30-14:30

• 장소 : 본관 1층 쇼케이스

• 초대 : 2014 창의서밋 3일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마무리하고 싶은 참가자들(100명)



하자센터 오시는 길



버스 이용시

신화병원 버스정류장

지선버스 5714 / 6614 간선버스 760 / 605 / 363 / 661

좌석버스 87-3 / 66 일반버스 70-2 / 70-3 / 67 지하철 이용시

5호선 영등포시장역 1번 출구 2,5호선 영등포구청역 2번 출구 (약도를 참고해 주세요)

* 개막일인 9월 26일에는 달시장 등 서밋 행사 야외 개최 관계로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센터(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새주소)
- 문의 070-4268-9910(홍보) 070-4268-9917(프로그램 협업)
-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사이트 http://jagongong.net/summit2014/
- 하자넷 www.haja.net
- 개별 프로그램 신청 사이트 http://archive.haja.net/summ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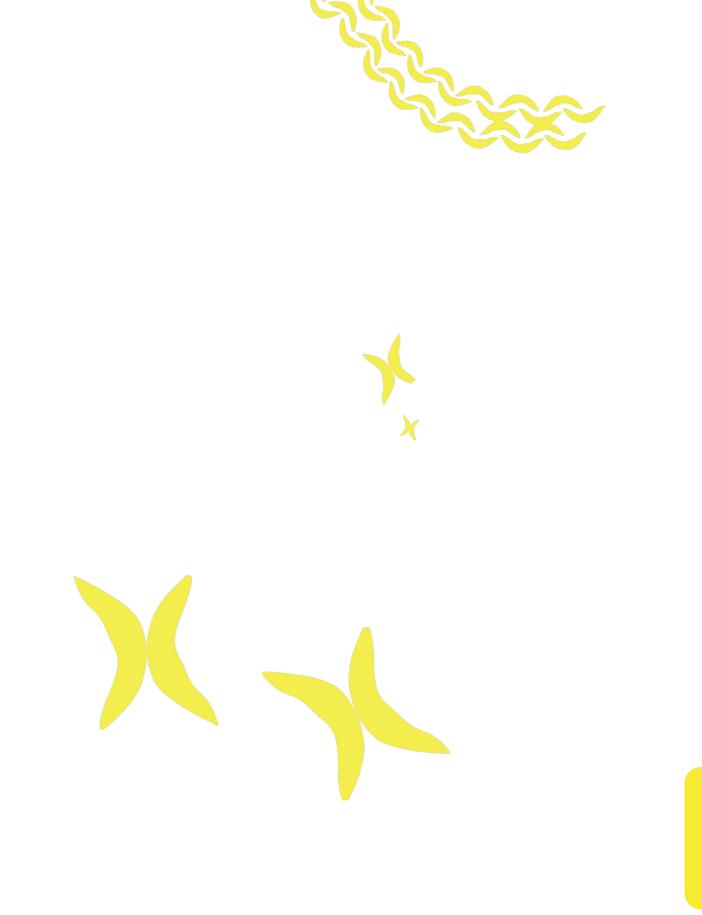
창의서밋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의 포럼, 워크숍, 강연, 투어 등은 하자센터의 예약 및 아카이브 사이트인 아카이브하자(http://archive.haja.net/summit)를 통해 사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사이트(http://jagongong.net/summit2014/), 하자넷 (www.haja.net)을 통해서도 세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기간 중 서밋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하자넷 오른쪽 상단의 뉴스레터 구독신청 코너를 이용해 신청해 주세요.

제 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의 모든 프로그램은 자체 콘셉트 및 공간 제약 등으로 인해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카이브하자를 통해 신청하신 후 스케줄 변동 등으로 불참하실 경우 각 프로그램의 기획자에게 전화, 메일 등으로 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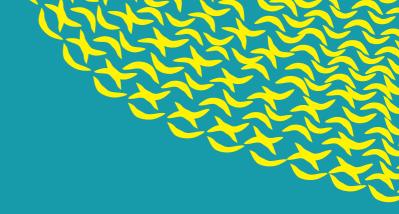












제6회 서울청소년창의서밋 6th SEOUL YOUTH CEATIVITY SUMMIT & FESTIVAL

